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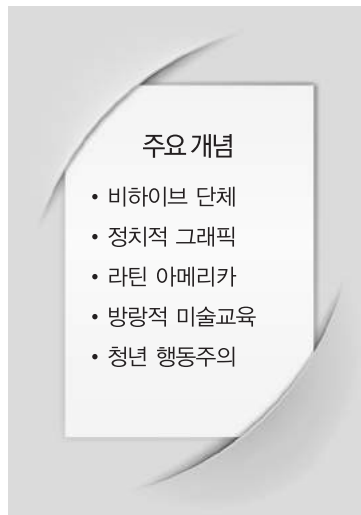
7

비행 행렬 : 비하이브 단체 유목 교사들과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폴리니자시오네스 프로젝트

Carolyn Erler

교잡수분은 다른 식물종 간 또는 다양한 동일종 간에 꽃가루를 옮기는 행위이다 (Delaplane & Mayer, 2000, p. 18).

비하이브 단체(Beehive Collective) 회원들은 양봉을 하는지 묻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답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잡수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하이브 단체는 근본적으로 비판적이고 희망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미술작품을 활용하여 '민초의 교잡수분'을 목적으로 하는(비하이브 단체, 2004) 정치적인 방랑 미술가들과 교사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그들은 배낭에다 그들의 작품을 접어 넣고 이곳 저곳을 자유롭게 다니며 새로운 학생들을 찾아 여행을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만타스(mantas)로 널리 알려진 패브릭 배너에 그린 그들의 미술작품들은 그들의 거장다운 애정 어린 노동으로, 언어학적·문화적 범위를 확장하는 능력을 가진 이야기들과 도해적 이미지들과 비전이 담긴 메시지들로 가득하다. 비하이브 단체 작품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이동한 미술작품은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로, 2004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동 중에



있다. 저작권이 없는 이 작품은 여러 손과 지역사회를 거쳐 교잡수분의 유기적이고 전체론적인 바람에 작품을 집단적으로 위임을 한 비하이브 단체의 활동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전파되었다. 이 장에서는 플랜 콜롬비아와 가장 헌신적인 교사들 중 한 명인 *lunes*라는 이름 하에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여행한 미술가 작품의 비행 경로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lunes

일부 야생벌들은 그들의 고유하고 바람직한 습성 때문에 꿀벌에 비하여 특정 작물의 수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한다(University of Georgia Honey Bee Program, 2008, p. 1).

나와 *lunes*는 2004년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만났다. 당시 나는 Yum!이라는 대형 다국적 패스트푸드 기업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보이콧하며 노동자들의 역사를 새로 쓴 플로리다의 이민 근로자들의 단체, 임모칼레 노동자 연합(Coalition of Immokalee)의 길거리 공연과 아지프로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다. 한 교수님이 그때 당시 인류

학 대학원생이었으며 평화와 사회정의의 위한 학생회의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챗터를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던 *lunes*를 찾아가 볼 것을 강력히 추천했다. 교수님을 통해 그의 번호를 받아 전화를 걸었다.

*lunes*는 안데스지방 식물민속이라는 주제의 졸업논문을 위한 자생 식물과 약초를 수집하기 위해 콜롬비아에 있었다. 마치 Subcommandante Marcos와 같이 그는 오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수신과 무선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자전거 가게, 갤러리, 무정부주의자 도서관, 그리고 정치적 근본주의 학생들이 여럿 기거하는, 난방이 되지 않는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던 캠퍼스 밖의 창고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 당시에 나는 *lunes*가 무정부주의자 학생들 사이에서 지역의 유명인사로 플로리다주립대학교 학생 방송국에서 일요일 밤에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는, 수행원까지 갖춘 인물임을 알지 못했다. 그는 나같이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보기 드물게 공손했던, 상냥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지적인 젊은이였다. 그가 비하이브 단체라는 전설적인 정치 미술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lunes*와의 이러한 만남으로 나는 연구원이자 대중 교육자로서 2004년 초 단체에 합류할 수 있었다.

비하이브 단체

꿀벌 집은 초개체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정의된 이유는 벌집 전체가 개나 곰과 같은 단일한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다(Royal Gold Farms, 2008).

내가 처음 단체의 멤버가 되었을 때, 청소년 특유의 시각문화에 대한 미술교육 분야 논문이 매우 적었다. Darts(2004, 2008)는 그래피티, 스텐실, 애드버스팅, 핵티비즘, 포스터와 광고판 수정과 같은 게릴라 아트 형식을 통해 단일문화와 소비지상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인 문화교란(culture jamming) 현상에 대해 비판적 연구를 수행한 최초의 학자들 가운데 하나이다(Gelwicks, 2004; Lasn, 1999, 2000). 비하이브 단체는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 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수준을 지녔다. 이 단체는 1937년에 시작된 멕시코의 대중 그래픽 미술 워크숍(TGP, Taller de Graphica Popular)과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그래픽 단체의 전통에서부터 힘을 얻는다. 멕시코의 혁신주의 운동 지원에 헌신한 TGP 자체가 1910년의 멕시코 혁명 당시 활동을 했던 판화의 거장이자 사회 비평가인 Jose Guadalupe Posada의 작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Caplow, 2007). 그들의 미술작품과 광범위한 교육학적 미션이 이렇듯 투쟁적 영향력을 받았다는 점은 비하이브 단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하이브 단체는 문화 활동가들과 그래픽 캠페인으로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전역과 북반구 일부 지역에 잘 알려져 있는 이미지 기반 교사들로 이루어진 느슨하게 조직된 국제적 네트워크이다(Hoffman, 2003). 1999년 반세계화 운동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단체로 출발한 비하이브 단체는 언론 기업들에 의해 목소리가 묵살된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경제·정치적 변화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대규모 그래픽 3부작[미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플랜 콜롬비아, 메소아메리카 혁명(Mesoamerica Resiste!)]을 제작했다(Behive Design Collective, 2004). 손으로 그려진 그래픽은 비하이브 미술가들과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그리고 미국의 토착민과 소작농민들, 운동가들, 그리고 연구원들 사이에 오간 대화들에 기초한 내러티브의 삽화이다(Hoffman, 2003). 플랜 콜롬비아는 북아메리카의 비하이브 단체 멤버들과 함께 콜롬비아계 미국인인 *lunes*에 의해 시작된 콜롬비아의 풀뿌리 이야기 수집 프로젝트의 산물이다(Erler, 2006).

‘플랜 콜롬비아’의 정치적 맥락

대부분 벌들의 죽음은 벌들의 거주(양봉장) 및 활동지역에 농약이 살포될 때나 이동될 때, 또는 벌들이 좋아하는 식물들 위에 살포될 때 이루어진다. 농약 살포의 결과는 대재앙이다(UGHBP, 2008, p. 1).

그래픽을 이해하기 위해 미-콜롬비아 관계의 근대사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된다. 1999년부터 미국은 마약 밀매와 좌익 게릴라들과의 전쟁을 위해 45억 달러를 지원하였다(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CIP], 2006).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중, 당시 작전 예산의 절반가량인 3억 600만 달러(Cooper, 2001; CIP, 2001)가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와 같은 사설 민간 방위산업체들에게 돌아갔다(CIP, 2007; U.S. Department of State, 2001, 2007; Harrop, 2007). 소위 확대 국제 평화유지군(Enhanced International Peacekeeping Forces, CIP, 2006)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병들은 콜롬비아 군과 함께 강력한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여 대대적인 코카인 작물 훈증 작전을 수행했다. 과학자들과 토착민 지도자들은 코카인 밭을 파괴하기 위해 화학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은 아마존 열대우림과 야생동물, 그리고 원주민들의 건강과 소규모 농촌 마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하늘에서 뿌려진 다량의 제초제는 식량 작물들을 죽이고 여러 건강 문제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었으며(Knight, 2000), 그 결과로 서반구에서 가장 대규모의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유엔 뉴스센터가 보고하고 있다(2004). 콜롬비아 국민들은 작전이 소작농들과 토착민에게 미친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해 왔다(Hart, 2000; Leech, 2007; Refugees International, 2004; Amnesty International, 2004). 이것이 바로 비하이브 단체가 이 기념비적인 배너인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 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림 1. 그림 강의 행사

그림 강의

꽃가루 매개체는 화분을 옮기는 주체로, 바람, 벌, 박쥐, 나방, 새 등이 있다(UGHBP, 2008, p. 1).

비하이브 단체는 그림 강의라고 하는 교육 행사의 일환으로 플랜 콜롬비아를 선보인다. 그림 강의는 두 명 이상의 비하이브 단체 멤버들이 공동으로 그래픽에 대해 자세한 내러티브 형식으로 발표하는, 한두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 학습 세션이다(그림 1). 그림 강의는 길거리, 교실, 복도, 교회 지하, 또는 지역사회 센터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비하이브 단체 멤버들은 지배적인 내러티브의 공백을 메우고 부정확한 면을 드러내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 그래픽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Behive Collective, 2004).

발표자인 또는 그림 강사는 비하이브 행사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이 사람은 상세한 그래픽의 의미를 공개하고 청중과의 관련성을 부각한다. 그림 강사는 단순히 청중들의 신념과 태도와의 관련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비하이브의 그래픽이 만화책과 만화 소설과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북아메리카의 열렬한 비하이브 그래픽 팬들은 청소년들이나 경우가 많다. 그림 강사들도 그렇다. 시각적 수사학자 Blair(2004)는 성공적인 시각적 논의는 논자들의 수사적 예리함에 의지한다고 주장한다. 플랜 콜롬비아의 설득력은 젊음과 비하이브 발표자들의 활력에 있다.

시각적 내러티브

꿀벌들은 과즙을 채집하여 꿀로서 벌집에 저장한다. 과즙과 꿀은 벌들이 비행에 사용하는 근육과 벌집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National Honey Board, 2008, p. 1).

플랜 콜롬비아 배너는 스크롤처럼 세로로 읽는다(그림 1). 압도적인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이 배너는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에 반대되는 내러티브를 제기한다. 미 국무

부는 콜롬비아의 갈등이 마약 테러리즘과 민주주의의 문화력 사이의 갈등으로 규정짓는 반면 비하이브 단체는 미국에 거울을 들이대며 이 거대한 자본주의 국가를 말벌(wasp) 또는 와스프(W.A.S.P.) 소굴로 비추고 있다. (배너를 살펴보는 동안 읽을 수 있는 팸플릿으로도 제작된) 내러티브는 배너 상단에서부터 시작한다. “현재 안데스 지역에서 플랜 콜롬비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메리카의 오랜 식민주의 역사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기업의 단일지배가 전 세계에 미치는 다면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은유이다.”(비하이브 단체, 2004, p. 2)

아래로 내려가면 콜롬비아 상공을 가득 채운 블랙 호크 헬기, 감시 위성, 첩보 비행기가 묘사되어 있다. 미국이 군사 대국이며 이러한 이미지들이 TV나 영화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미 사람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미지를 통해 비하이브 단체(2004)는 그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십억 달러의 다층적 군사 작전 : 마약과의 전쟁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마존 밀림과 그 원주민들의 천연자원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의 착취에 보이는 관심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p. 4)

9.11 사태 이후 언론을 통해 농약 살포기는 미국의 식량 공급에 대한 잠재적 테러 공격의 불길한 상징물이 되었다. 비하이브 단체는 이에 관한 다른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이 이미지를 사용했다. 플랜 콜롬비아 내러티브는 다음을 강조한다. “미국 화학 기업인 Monsanto가 생산한 광역 제초제 Round-up Ultra는 미국인들에게는 마약과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뿌려졌지만 자금용 농작물과 열대우림 서식지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p. 3)

네 번째 장면, “모기떼가 지역의 자원 착취하기 위해 습격했다.”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사이의 열대우림에 500마일에 걸쳐 매설된 카노 리몽-코베나스 송유관이 그 주제이다. 이곳은 훈증 작업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결과적으로, 옥수수나 호박 농사에 실패한 수백만의 콜롬비아인들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기업 민병대와 미국

의 자금 지원을 받는 반란진압대, 좌파 게릴라, 그리고 고엽 훈증에 치인 이곳의 소작농들과 원주민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식민주의의 침략을 받는’ 경험을 한다(비하이브 단체, 2004, p. 3).

콜롬비아 그래픽에 묘사된 이 악몽에 대한 해결방안은 개미들의 활동을 통해 표현된다. ‘벌의 심판을 받는 악몽’이라고 명명된 마지막 장면에서 앞걸이개미들이 유럽인들이 지은 Colombia라는 이름의 철자 모양으로 흰 파이프라인을 해체하고 있다. 저항의 개미들은 분주하게 악몽의 현장을 부수고 조각조각 땅 속으로 가져간다. “이 악몽들을 흙이라는 여과장치로 처리하여 퇴비화하는 것은 다시 자라는 것은 지금 만큼 파괴적이지는 않을 것임을 장담한다.”(비하이브 단체, 2004, p. 4) 여기에 비하이브 단체의 역사 속 식민주의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오늘날 시장의 세계화라는 형태를 띠는 신 식민주의의 부상에 대한 운동가들의 해결방안이 있다.

폴리니자시오네스(Polinizaciones)

이 글을 쓸 준비를 하면서 나는 lunes의 그래픽 작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연락을 했다. 우리는 한 2년 정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나는 그의 안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간 무얼 하면서 지내셨나요? 벌들과 작업은 좀 하셨나요?”

몇 시간 뒤 그의 답장이 왔다. “콜롬비아에서 산지 일 년이 좀 지났어요. 당신한테만, 그리고 나머지 비하이브 멤버들한테만 말하는 거지만 제가 (플랜 콜롬비아)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주요 인물이에요. 여기서 새로 합류한 벌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장 기록을 하라고 할 겨를이 별로 없었네요.”(lunes, 개인적인 대화, 2008년 5월 5일)

나는 답장했다. “콜롬비아에 있다니 기쁜 소식이에요. 어디쯤인가요?... 프로젝트를 맡고 주요 인물이고 새로운 벌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을 떠날 때 비하이브와 관련해서 계획한 바가 무엇이었나요?”

같은 날 답장이 왔다. “대부분 비하이브 활동과 대중교육 관련 일을 해요. 현재는 보고타에 있지만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아요. 2주 전에는 라과히라에 있었고 일주일 반 뒤에는 베네수엘라로 가서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비하이브 활동을 위해서죠.”

나는 비하이브 단체가 학계를 거의 존중하지 않다는 사실에 민감해 하면서 그가 콜롬비아에서 가르쳤던 경험에 대해 자세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나는 그 결과가 미술교육과 사회정의에 대한 책에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대답했다. “정말 흥미롭게 들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고 일주일 후면 다시 여행을 떠날 텐데 (그러면) 인터넷은 거의 못쓸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요.”(lunes, 개인적인 대화, 2008년 5월 6일)

그와의 서신은 그가 베네수엘라로 떠나기 며칠 전 끊겼다. 나는 관심을 비하이브 단체 웹사이트와 이 웹사이트의 폴리니자시오네스 블로그인 ‘콜롬비아로부터의 보고’로 돌렸다. 블로그에 명시된 목적은 ‘폴리니자시오네스의 발족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아마도 lunes (2008)가 썼을 소개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폴리니자시오네스는 비하이브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그리고 파나마 단체들과 사람들이 협력 프로젝트로, 아메리카의 세계화, 특히 미주자유무역지대, 플랜 콜롬비아, 그리고 플랜 푸에블라 파나마(Plan Puebla Panama)에 대한 비하이브 단체의 3부작 그래픽의 배포를 목적으로 한다. 2007년이었던 작년 한 해는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에 피해를 입고 저항으로 대응하는 일부 유기적 조직체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데 사용되었다. 2008년에는 현지 개미와 벌떼가 나서서 이야기, 경험, 그래픽, 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페다고지 도구 창출과 문화적 저항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는 지역들을 방문할 것이다.

비하이브 단체의 대중 교육 미션의 필수적인 부분은 협력적 연구 과정의 결과, 즉 완성된 그림들을 그래픽에서 묘사된 현실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사회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콜롬비아 내정 간섭과 PPP의 거대 프로젝트의 현실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픽은 지역사회의 분투에 대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의 현실에 대한 대화를 장려한다. 콜롬비아와 파나마 지역 공동체들과 함께한 우리 작업들 중, 우리는 특별히, 하지만 비배타적으로 이미지 기반 소통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그림 2).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그래픽 기반의 학습을 촉진하면서 대중 교육 방법을 통한 경험 공유를 장려할 것이다(비하이브 단체, 2008).

lunes는 그가 가르친 경험에 대한 공식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베네수엘라를 떠나기 전 콜롬비아에서의 경험을 폴리니자시오네스 블로그에 게재했다. 나는 그 글을, 당연한 얘기지만, 선물로 받아들였다. 그가 그의 생각들을 나에게 직접 이메일로 쓰는 대신 블로거들과 함께 쓰기로 선택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의 블로그는 짧은 이메일 교환을 통해서만 포착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의식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 예로 그는 그가 리과르도(resguardo)라 불리는 토착민 보호구역에 보고타 인근의 무이스카 연맹(Muisca Federation) 회원들과 방문할 거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그림 3).

lunes의 블로그에 쓰인 글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무이스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무이스카 문화는 기원전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콜롬비아 동쪽에 위치한 고산 대초원지대에 기반을 두고 대규모 농업 사회를 일군 이 문명은 기원후 1000년에서 1550년까지 가장 번성했다. 스페인이 점령을 한 뒤 무이스카의 생존자들은 원주민 보호소(리과르도)에 살면서 스페인 식민지 주민들을 위해 땅을 일굴 것을 강요당했다. 1810년 새롭게 독립한 콜롬비아 정부가 무이스카 지역사회가 매입하고 1916년 다시금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코타 보호



그림 2. 폴리니자시오네스 블로그에 게재된 그림 강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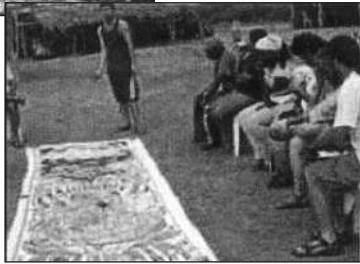


그림 3. 콜롬비아에서 가르치는 lunes

구역은 제외한 모든 보호소들을 해체했다. 이후로 토착민 의회는 복원 과정 중에 있다. 2002년 코타, 수바, 보사, 치아와 세스쿨레에 설립된 다섯 의회가 모여 무이스카인들의 1차 총회를 개최, 무이스카인 대의회를 설립하고 콜롬비아 국가 토착민 협회에 가입하였다 (Nativewiki, 2008; Colombia Support Network, 2007; ONIC, 2008). *lunes*가 나의 이메일에 답장을 한 것도 바로 이 생활세계 안에서였다.

다음은 *lunes*가 쓴 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필요한 곳에는 괄호 안에 영어로 번역을 해두었다. 전문은 <http://polinizaciones.blogspot.com/>에서 읽어볼 수 있다.

Bajo la sombra del Majuy—Majuy의 그늘 아래에서

2008년 5월 13일

Lunes

또 다른 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콜롬비아 각지에 서 Bacatá(보고타)의 사바나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우리가 휴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요 몇 주 동안 우리는 종종 콘크리트 숲에서 벗어나 코타에 있는 무이스카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Bacatá를 비롯한 사바나의 다

른 곳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이스카 민족의 허밍버드(메소아메리카의 신화 속에서 허밍버드의 형상을 한 신) *compañera*(소녀들)을 만나고 방문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렇듯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리과르도(보호구역)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몇 차례 걸쳐 스토리텔링(그림 강의)을 해주고, 옥수수과 끼누아(*quinua*)를 심는 밉가스(공동체 작업)에 참여하고,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약과 상담을 받았으며, 긴 여행으로 우리의 뱃살도 없앨 수 있었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그 지역의 음악을 하는 단체가 있는 청소년 공동체와 공유를 한 경험이었다. 이 작은 허밍버드들은 시커스(*sikus*), 케나스(*kenas*), 기타, 봄보스(*bombos*), 차랑고(*charrango*)로 볼리비아, 페루, 그리고 자신들 문화의 음악을 연주하며 위, 아래, 곳곳을 날아다녔다. 다른 무엇보다 허밍버드 청소년들의 깃털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의식, 겸손,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땅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양을 돌보는 것도 도우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풍습과 전통,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들의 공동체와 대륙과 또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었다.

허밍버드와의 만남과 사바나에서 토착민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아주 흥미로웠지만 우리가 목도했던 다른 지역들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은 이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허밍버드 청년들이 뛰어난 인재들이고 지역의 어르신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허밍버드들 가운데 많은 수는 그들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에 흥미를 잃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찍이 사바나가 스페인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고, 더 최근에는 인근에 위치한 보고타와 이곳에서 받은 물질주의와 소비자 문화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보고타의 부유층들이 농지를 사들여 주택 부지 구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골 주민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직물, 도자기, 음악, 전

통 농업 등 관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예도 많지만 이러한 관습들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허밍버드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 보고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 습지를 메우고 숲을 벌목하고 비옥한 땅을 도로로 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 도시화가 … 한창인 가운데 여태껏 가장 큰 규모의 무이스카와 무이스카 이전 시대의 묘지가 발견되었다. 묘지에는… 최대 1,500개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가장 오래된 것은 2,000년도 넘는 것이었다. 무덤의 발견은 보고타가 확장되면서 흡수될 상황에 직면한 우스메(Usme, 또 다른 무이스카 계통의 스페인 정착지) 주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다. 지역에 예정된 주택 단지 개발에 반대를 했었지만 그동안 공사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현재 그들은 사바나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이 공동 묘지가 시와 국가의 고고학 문화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Altiplano Cundiboyacense(콜롬비아의 안데스 지역 동부 회랑지대에 따라 있는 고지대로 고대 무이스카 영토) 주민들의 조상이 그곳에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를 지키고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지역에 널리 퍼진, 무이스카 문화가 죽은 문화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가와 민간 기업들과 같이 사바나를 침입하는 주체들에 의해 소외된 무이스카는 그들 조상의 영토에서 저항과 생존을 하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들이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여정이 남아 있는 이 비행을 마치고 난 후 한 연장자가 우리의 방문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들의 경험, 고귀함과 전념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른 벌집의 형제들을 우리가 가는 길 위에서 만나도록 허락한 생명과 대자연과 대

지(*hicha quiaia*)에 감사드린다. 지구와 우주와 은하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생명을 해하고 오염시키고 있다.

그들은 우리 원로들의 말을 기억하게 했으며, 우리의 기억과 문화의 전통, 대지(*hicha quiaja*), 귀한 전통 약제, 씨앗과 예술, 밭가의 노동, 삶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의 영토와 위대한 비하이브 안에서, 우리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 우리를 우리의 근원으로 다시금 인도할 길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주된 도구로서 서구의 생각에 대해 더 배우라. 이것이 신성한 영혼(*hicha quiaia*)에 의해 따듯해진 우리 마음속의 진실을 찾으려 인도할 것이다.

ANAXIE <- ITZE QUENE [그렇고 말고(so it is)] (*lunes*, 2008년 5월 13일)

비행 행렬

꿀벌 떼의 이동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이다. 비행이 시작되는 것은 황홀한 광경이다(Ellis, 2008).

*lunes*는 스토리텔링, 작 물 심기, 약을 받은 일, 그리고 원로들의 자문을 한 문장으로 썼다. 모든 것들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lunes*의 글에는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현대 서구 유럽의 교육 개념으로부터의 일탈을 나타낸다.

글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존중으로 서로를 대할 때 가르침과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 심오한 주제는 정착되고 수용된 사회의 타인이 되기 위해, 비유적으로 밭/또는 물리적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필요이다. 여행하는 이방인으로서 사람은 다른 집의 손님이 되는 것을 통해 배운다. 만약 당신이 손님으로서 스스로를 유용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lunes*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스토리텔링과 같은 교육학적 활동들은 인간의 만남에 의미와 깊이를



그림 4. '플랜 콜롬비아'의 세부 이미지, '이야기 속의 이야기.'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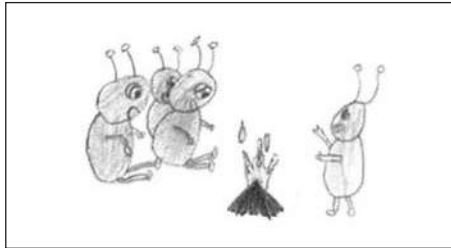


그림 5.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한 어린이의 그림. 2008

부여하는 행위들의 넓은 네트워크 속에서 일어난다. *lunes*는 무이스카 사람들과 무분별한 교외지역 확장과 산업공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현대적 생활에 둘러싸인 전통부족들이 직면한 스트레스에 대해 배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 듯이 보였다. 정식 교육의 순간은 이렇듯 잘 준비된 바탕에서 비롯되었다. 비하이브 단체의 배너는 어디를 가든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흥미를 이끌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그림 4, 5).

폴리니자시오네스는 *lunes*가 여행을 하고 가르칠 때마다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며, 비하이브 방식으로 비행의 꿈을 꿀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폴리니자시오네스 블로그가 보여주듯이 이것은 벌써 일어나고 있다. 이메일을 통해 *lunes*가 “여기서 새로 합류한 별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장 기록을 하라고 할 겨를이 별로 없었네요.”(개인적인 대화, 2008년 5월 5일)라고 쓰긴 했지만 블로그가 점점 인기를 얻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lunes*가 5월 13에 쓴 글 이후에 *Miércoles*라는 이름의 별이 두 개의 글을 게시했다. 5월 14일에 게재된 글로, 감옥에 수감된 세 명의 학생들의 석방을 위한 슬로건인 “*Tres Alumno de Univalle Libres!!*”와 5월 21일에 게재된 것으로, 코카콜라와 다른 대규모 기업에 의한 깨끗한 식수 독점에 관한 장황한 글인 ‘*La*

Privatizacion del Agua’가 그것이다. Domingo라는 이름의 또 다른 블로거는 5월 4일자로 ‘*Sixth Encuentro Tawantisuyu Abya Yala Pacha Mapu Woumain – Venezuela*’라는 글을 게시 했는데,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토착민 청소년 운동의 비전과 동인을 드러내고 있다(그림 6).

제6회 Tawantisuyu 청년들의 대륙 모임은 우리에게 권력에 대한 저항의 기준과 전략을 통일하는 프로젝트를 지속하도록 하며, 양질의 삶을 구성하고 품위 있는 삶으로 나아가며 우리 조상들의 충실한 삶의 기억에 대한 꿈을 구체화시키고, Abya Yala Pacha Mapu(대지 Tierra y Nature)의 토착민들 사이에서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다양성 속에 존엄하고 지혜롭게 공존하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러 목소리들의 노래를 노래하고,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정치 및 경제 패권 국가들이 침략과 종족학살, 굴복, 그리고 문화 단일화를 계속하기만을 원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스템의 영향에서부터 회복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 공간은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비야 알라(Abya Yala)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통합에 대한 교류와 구성의 환경을 가능하게 하며, 이 지역에서 상호작용하는 토착 청년 단체는 오랜 시간 경계들로 인해 악화되어 온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토착민 청년들은 약 3,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태양의 무한한 네 개의 면을 형성하며, 서로를 발견하고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것과 행동의 공통된 성향을 정립하고 모든 대륙과 대지에서 Tawantisuyu Abya Yala Pacha Mapu Woumain의 세대 간 운동의 일반적 통합에 있어 우리 자체적인 실질적 지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촉구한다.

“우리는 이 기회를 준 어마어마한 광대함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변함이 없는 것은 내일을 위함이다.

그 어떤 것도 피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림 6. Domingo의 5월 4일 자 포스팅 속에 연대의 깃발 (the flag of solidarity)을 흔들고 있는 개미



그림 7. 보고타 길거리에서의 그림 강의

Quetzalcoatl(고대 멕시코의 창조와 문명의 신-역주)처럼”

AMARU KNKY

우리는 수백만이 되어 돌아왔다.

흔들림은 안에서부터 비롯되고, 이를 위해 우리의 ‘N’은

곧 ‘S’이다.

환영합니다! (Domingo, 2008)

비하이브 단체의 미술과 교육은 이와 같이 청년들이 정치

적으로 동원되고 대중 행동의 힘이 잘 수용되는 사회적 풍토를 본거지로 삼는다. Paulo Preire에 의해 미국에 소개되었으나 널리 수용된 적이 없는 대중 교육이라는 개념은 lunes, Domingo, Miércoles를 비롯한 다른 별떼들이 폴뿌리를 교잡수분하는 과정에서 실천하는 비형식적이고 방랑적인 미술 교육이라 할 수 있다(그림 7). 그들의 교육에 깃든 정신은 학교에 묶인 많은 교육자들이(미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낭만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많은 미국의 중산층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기도, 더 잔인한 곳이기도 한다. 독일의 양봉가들의 시위에서 배포된 팸플릿의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하는 글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류의 남은 생존 기간은 4년에 불과할 것이다. 벌이 없으면 교잡수분도 없다는 것이므로 식물도, 동물도, 따라서 인류도 존재할 수 없다”(McLaughlin, 1994, p. 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 희망과 비판을 위한 벌들의 비행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할 세계적 체계를 향한, 보다 광범위한 적응 운동의 일부로 보인다.

참 · 고 · 문 · 헌

- Amnesty International. (2004, April 23). Colombia: A laboratory of war: Repression and violence in Arauca. *Amnesty International Online Documentation Archive*. Retrieved October 24, 2007, from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mr230042004>
- Beehive Design Collective. (2008). Reportbacks from Colombia – Polinizaciones blog active! Retrieved May 19, 2008, from <http://www.beehivecollective.org/english/polinizaciones.htm>
- Beehive Design Collective. (2004). *The Beehive Collective's Plan Colombia narrative*. Retrieved November 10, 2005, from www.beehivecollective.org
- Blair, A. J. (2004). The rhetoric of visual arguments. In C. Hill & M. Helmers (Eds.), *Defining visual rhetorics* (pp. 41–62). Mahwah, NJ: Erlbaum.
- Caplow, D. (2007). *Leopoldo Mendez: Revolutionary art and the Mexican prin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2001). Colombia (2001 narrative). Retrieved October 28, 2007, from <http://www.ciponline.org/facts/co01.htm>
-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2006). Just the facts: A civilian's guide to U.S. defense and security assistance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trieved October 28, 2007, from <http://www.ciponline.org/facts/co.htm#military>
-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2007, November). U.S. contractors in Colombia. Retrieved October 28, 2007, from <http://www.ciponline.org/colombia/contractors.htm>
- Colombia Support Network. (2007, May 31). National Indigenous Organization of Colombia (ONIC) on land rights. Retrieved May 18, 2008, from <http://colombiasupport.net/news/2007/05/national-indigenous-organization-of.html>
- Colombia has the biggest humanitarian crisis in the Western Hemisphere, UN says. (2004, May 10). *UN News Centre*. Retrieved October 27, 2007, from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10691&Cr=colombia&Cr1#>
- Cooper, M. (2001, March 19). Plan Colombia. *The Nation*, 272(11), 11–18.
- Darts, D. (2008). The art of culture war: (Un)popular culture, freedom of expression, and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49(2), 103–121.
- Darts, D. (2004). Visual culture jam: Art, pedagogy, and creative resistance. *Studies in Art Education*, 45(4), 313–327.
- Delaplanc, K. S., & Mayer, D. F. (2000). *Cross pollination by bees*. Oxon, U.K.: CAB International.
- Domingo. (May 4, 2008). Sixth Encuentro Tawaintisuyu Abya Yala Panch Mapu Woumain—Venezuela. Message posted to <http://polinizaciones.blogspot.com/>
- Ellis, M. (2008). Honey bee swarms. Retrieved May 21, 2008 from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Department of Entomology website: <http://entomology>

- unl.edu/beekeepg/beeswarn.shtml
- Erler, C.R. (2006). *Learning from the Beehive Collectiv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udy of image-based education in an experimental commun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 Gelwicks, J. (2004). CultureJam: Hijacking commercial culture.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42(1), 135-6.
- Harrop, E. (2007, June 26). The madness of Plan Colombia. *Real Clear Politics*. Retrieved October 24, 2007, from http://www.realclearpolitics.com/articles/2007/06/the_madness_of_plan_colombia.html
- Hart, P. (2000, May/June). Colombia's cocaine shell game: Media are leading the U.S. into a civil war in the name of the "war on drugs." *Fairness & Accuracy in Reporting (FAIR)*. Retrieved February 25, 2006 from <http://www.fair.org>
- Hoffman, H. (2003, November 19). The Beehive Collective. *In These Times*. Retrieved November 18, 2007, from http://www.inthesetimes.com/article/113/the_beehive_collective/
- Knight, D. (2000, November 21). Plan Colombia: Fumigation threatens Amazon, warn indigenous leaders, scientists. *Inter Press Service News Agency*. Retrieved October 27, 2007, from <http://www.commondreams.org/headlines/112100-01.htm>
- Lasn, K. (1999). *Culture jam: The uncooling of America*. New York: Eagle Brook/William Morrow and Co.
- Lasn, K. (2000). The meme machine. *The Ecologist*, 30(2), 44-5.
- Lecch, G. (2007). *Crude interventions: The United States, Oil, and the New World (Dis)Order*. London, UK: Zed Books.
- Lunes. (2008, May 13). Bajo la sombra del Majuy—Beneath the shade of the Majuy. Message posted to <http://polinizaciones.com/>
- Lunes. (2008). Reportbacks from Colombia. *Polinizaciones* [blog]. Retrieved May 10, 2009, from The Beehive Collective website: <http://polinizaciones.com/>
- McLaughlin, C. (1994, January 29). Fearful beekeepers plead for curbs on honey imports. *The Scotsman*, p. 13A.
- Nativewiki. (2008). History of the Muisca people. Retrieved May 19, 2008, from <http://www.nativewiki.org/Muisca>
- National Honey Board. (2008). Honey and honey bees: The incredible story. Retrieved May 15, 2009, from <http://www.honey.com/consumers/kids/beefacts.asp>
- National Indigenous Organization of Colombia (ONIC). (2008). Historia social y politica del Movimiento Indigena de Colombia. Retrieved May 19, 2008, from <http://www.onic.org.co/historia.shtml>
- Refugees International (2004, July 30). Forgotten people: Displaced indigenous people of Colombia. Retrieved March 15, 2006, from <http://www.refugeesinternational.org/content/article/detail/3093/>
- Royal Gold Farms. (2008). Honey bee hive structure. Retrieved May 16, 2008, from <http://www.royalgoldfarms.com/Web%20Pages/Hive%20Structure.htm>
- University of Georgia Honey Bee Program. (2008). Protecting pollinators from pesticides. Retrieved May 16, 2008, from University of Georgia, Honey Bee Program website: <http://ourworld.compuserve.com/homepages/Beekeeping/>
- U.S. Department of State. (2007). Report to Congress on certain counternarcotics activities in Colombia. Retrieved October 28, 2007, from <http://www.ciponline.org/colombia/contractors.htm>
- U.S. Department of State. (2001, March 14). Plan Colombia. Retrieved October 24, 2007, from <http://www.state.gov/p/wha/rls/fs/2001/1042.htm>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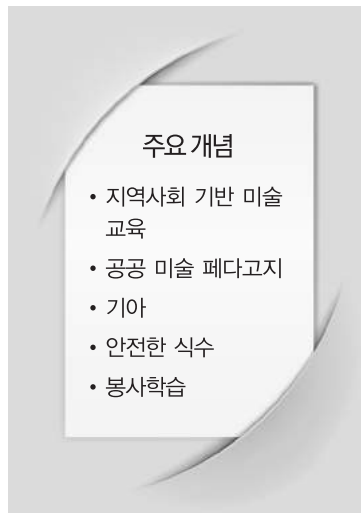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각적/가시적) 변화 창출 : 책임감 있는 미술가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미술적 대응

B. Stephen Carpenter II, Pamela G. Taylor, Min Cho

공공 페다고지는 교수법과 학습법, 그리고 교과과정에 있어서 개념의 재정리가 필요하다(Ibanez-Carrasco and Meiners, 2004; Slattery, 2006). 우리는 이러한 공공 페다고지가 학생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시각문화, 미디어학, 디자인 교육 등을 포함한 최신 현대 미술교육의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 미술 페다고지는 그 이론과 실천에 대한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회정의 의제를 요구한다. 적어도 봉

사학습 분야에서 사회정의의 접근 방법은 신중하게 조직된 봉사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ASLER, 1993) 학생, 교육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다(Boyle-Baise & Langford, 2004).

McFee와 Degge(1977)은 지역사회 기반 미술교육의 초창기 개념을 정립했다. 공공 미술교육을 쟁점과 필요의 관점에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지역사회 기반 페다고지, 지역사회 기반 학습 및/또는 지역사회 기반 교육은 전통적인 제도적 경계를 넘어 교육적 목적과 전략, 활동을 연결한다(London,



1994; Stephens, 2006; Ulbricht, 2005). 이 장에서 우리는 공공 교육학(Brady, 2006; Ibanez-Carrasco & Meiners, 2004; Slattery, 2006), 새로운 장르의 미술교육(Green, 1999), 봉사학습(Taylor, 2002a, 2002b, 2004, 2005; Taylor & Ballengee-Morris, 2004),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미술교육(London, 1994; McFee & Degge, 1977; Neperud & Krug, 1989; Stephens, 2006; Ulbricht, 2005)에 대해 집중 탐구하여 '변화를 만드는' 미술교육 개념을 위한 토대

를 수립할 것이다.

이 장은 그동안 우리가 설계, 실행, 평가,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봉사학습과 지역사회 기반 미술교육 프로젝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정의 의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공공 미술 페다고지 개념을 위한 적절한 예가 되기도 한다. 특히 빈 그릇(Empty Bowls) 프로젝트를 통한 기아 문제(Taylor, 2002a)와 평화를 위한 도공들(Potters for Peace)이 주도한 안전한 식수 등의 프로젝트들이 공중보건과 교육의 필요에 대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프로젝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사회 발

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미술적 대응의 좋은 예가 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미술가들과 교육자들이 그들의 지역사회 안에서 유의미한 공공 미술 페다고지로 진전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비슷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관찰로부터 도출한 일련의 원칙들을 제공한다.

점토, 도예, 그리고 그릇

문화와 시대에 상관없이 도공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체나 작업실 환경에서 함께 일한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보이는 공통된 양상의 한 이유는 점토로 작품을 생산하는 노동 집약적 환경에서 비롯된 도자기 제작이다. 도공들은 점토를 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손으로 빚거나 물레 성형을 하고 가마에서 초벌구이를 한 뒤 유약을 발라 재벌구이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은 도자기를 만들 때 필요한 전통 연료인 장작이나 토탄을 만드는 작업은 포함하지도 않은 것이다.

물이나 곡식 등을 담거나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주된 책임 때문에 도공들은 지역사회에서 항상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더 나아가 도공들은 지붕, 바닥 타일, 식기나 세면기와 같은 살림살이를 제작하는 역할도 맡아 왔다. 이러한 수제작 물건들은 그 물건들이 제작된 지역의 의미와 작가의 점토 작업장에서 지속되어 온 지역의 역사적·전통적 의미를 체현한다. 공공장소로서 도예 작업장의 개념은 대학 내 학사 및 석사 도예 작업실이나 지역사회 미술 센터,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미술학부에서 운영되는 커리큘럼의 한 부분으로 도입되었다(Carpenter, Bey, & Smith, 2007). 실제로 도공들이나 도예가들은 책임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과 사회정의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 가설에 근거하여, 우리는 사회정의 촉진을 위한 책임 있는 지역사회 기반 운동에 참여한 미술가들의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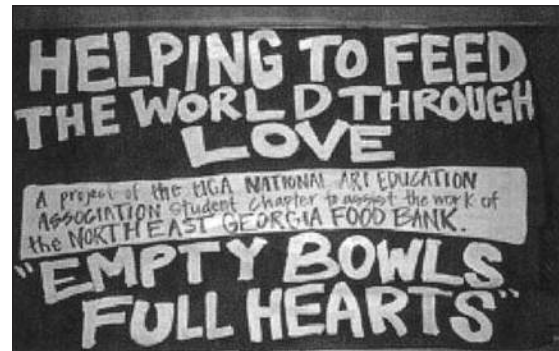
기아를 직면하다 : 빈 그릇 프로젝트

1990년 미시간의 한 고등학교 미술 수업에서 시작된 빈 그릇 운동은 기아 퇴치에 도움을 주는 고유한, 국가의 인정을 받는 기금 조성 프로젝트이다(Imagine/RENDER, 2006). 이 프로젝트는 지역 식량저장배급소나 그와 비슷한 기관들의 기금 조성 행사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스프 같은 식사에 사용되는 수제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손님들은 식사와 함께 교육 목적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다. 행사 마지막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의 텅 빈 그릇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자신들이 받은 그릇을 가져간다(Imagine/RENDER, 2006).

수년 동안 많은 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빈 그릇 프로젝트와 똑같은 가치와 다양성을 가진 다른 운동에 참여해 왔다. 전통적인 식사 제공에서부터 다른 기금 모금 행사(경매, 예비



많은 손길들과 소유의 공유를 통해 빈 그릇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빈 그릇 행사는 밸런타인 프로젝트인 '빈 그릇, 넘치는 사랑(Empty Bowls Full Hearts)'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띤다.

신부를 위한 파티, 휴가 패키지 등)를 비롯하여 지갑과 상자 같이 용기 개념의 그릇에서부터 합지나 기타 다공성 매체로 만들어진 비유적이고 비실용적인 그릇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빈 그릇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 많은 관심과 기금 모금의 기회를 도출한다.

우리의 빈 그릇 프로젝트 경험은 다양한 전통적 및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필자 Taylor(2002a)는 래드포드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중 지역 도공들과 미술학 및 미술교육학 전공생들,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전시와 강연, 그리고 싱어송 라이터 Quinn Loggins의 공연을 곁들인 스프 디너를 위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Loggins는 이 행사에서만뿐 아니라 이후 지역의 음악 클럽에서 개최된 기금 모금 행사에서 빈 그릇 노래를 직접 작곡하여 공연했다.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도 Taylor는 그곳의 미술교육학 전공생들과 함께 지역 교회의 연례행사를 위한 그릇을 제작하여 빈 그릇 활동을 이어나갔다. Taylor의 학생들은 또한 매년 ‘빈 그릇, 넘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밸런타인데이 이벤트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기금 모금 목적으로 세라믹 그릇을 제작하고 직접 만든 대접에 사탕 등을 채워 미술학부 건물에서 판매했다. 연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더욱 진실된 사랑의 표현 : 다른 이들을 돌보는 선물’을 주자고 외쳤다(personal communication, February 14, 2004). Taylor는 그녀의 여동생 Pat Taylor Bullard에게 이 아이디어에 대한 공을 돌렸다. Bullard는 특히 라이프워크 재단을 통해 테네시 주의 기아 문제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필자 Cho가 국가 봉사학습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한 빈 그릇 프로젝트에서는 버지니아 코먼웰스주립대학교의 대학원생들 여럿과 컨퍼런스 참여자들이 초벌구이 된 세라믹 시리얼 그릇을 디자인하고 유약을 칠하는 활동에 참가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인쇄물을 통해 빈 그릇의 개념을 인식하고 유약이나 밀그림용 연필로 디자인한 그릇을 만들었다. 그들은 음식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맑은 유약에 담근 뒤 지역 도자기 창고에서 구

워서 전시와 판매를 위해 컨퍼런스에 다시 가지고 왔다. 그릇을 직접 디자인한 참여자들 가운데 약 90%가 그릇 제작 경험을 추억하고 기아퇴치 운동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작품을 구입했다. 이러한 열광적인 반응의 결과로 1,000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현지 기아 단체와 노숙자 쉼터에 기부했다.

2002년 Taylor는 전국의 빈 그릇 운동 촉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누가 행사에 참여하며 행사의 수혜자들은 어떻게 선정되며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생각들이 프로젝트의 동기와 혜택에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빈 그릇 프로젝트 촉진자들 가운데 설문 조사에 응답한 65%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와 시민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생각을 프로젝트 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로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봉사에 대한 헌신을 장려하는 것은 사회정의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빈 그릇 프로젝트가 관찰자와 후원자, 미술가 및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준다고 믿는다.

목마름을 직면하다 : 평화를 위한 도공들과 다른 미술가들

전 세계적으로 1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수인성 질병에 의해 사망하며 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이러한 수인성 질병이 사망의 주원인이다(Water Partners International, 2008). 캐나다의 뉴스 및 통신사인 CTV(2006)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새로운 UN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질병을 퍼뜨리는 국제적 물 위기에 대해 세계 최부국들이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물과 위생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위기’로 묘사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깨끗한 식수와 화장실 부족으로 매일 5,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있다(Retrieved online, March 2, 2007, <http://www.ctv.ca/>